179.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
(46) 면 니트 트리밍의 컬링

□ 면 니트 트리밍의 컬링

해설)

◦ 카디건을 드라이클리닝했는데, 몸판이 줄어들고 소매가 늘어났음. 이 제품은 앞몸판 부분은 견 100 %, 뒤판 및 가슴받이 부분은 면 니트가 사용되었음.

◦ 특히 앞섶의 테이프 모양 면 니트의 수축이 격렬하여 버튼을 풀면 천이 젖히는 컬링현상이 일어나고, 앞섶의 면 니트가 수축되어 몸판이 주름진 상태로 되어 있음. 컬링은 열고정성이 낮은 면, 마, 레이온의 앞면과 뒷면의 구조가 다른 니트 제품에 발생되기 쉬운 특징이 있음.

◦ 이 제품의 경우 면 니트와 견직물이라고 하는 극단으로 성질이 다른 구조의 천을 조합했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닝 공정의 마찰작용에 의해서 신축의 차가 생겨 변형된 것이라고 추정됨.

◦ 용해하는 오염성분 외에 일반적으로 먼지 등의 불용성 오염성분이 섬유 사이에 얽히고 있기 때문에 세정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계력에 의해서 불용성 오염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물처리는 하지 않지만, 소재간의 물에 의한 영향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구성이기 때문에 땀 오염 등의 수용성 오염은 기본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려운 소재구성의 제품임.

♠ 자료출처 : 송종욱 역,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 한국세탁업중앙회, 2011

www.textilecare.kr